

EYA 중국 도서 소개

안녕하세요?

EYA 에서 보내드리는 2015 년 11 월 셋째 주 중국어권 뉴스레터 (2) 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된 도서의 검토서 신청 및 문의는 이메일 newsletter@eyagency.com 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初恋爱

가제 : 첫사랑

저자 : 지우이에후이(九夜茴)

분량 : 234 페이지

발행일: 2014.12.01

장르 : 로맨스 소설



“중국판 무한도전” 제작자 천띠 감독의 영화화 확정, EXO 중국 멤버 출연

기억 속 첫사랑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하는 사랑 이야기

주인공 온정과, 첫사랑이자 그의 유일한 사랑이라 믿었던 아내 ‘도소평’. 하지만 그녀가 건넌 미안하단 말과 함께 그들의 사랑은 끝이 난다. 온정은 이후 극심한 우울과 고통을 경험한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게 된 온정은 아내 ‘등소평’에게 자신이 아닌 첫사랑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절친했던 친구 맹번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는다.

역시나 동창이었던 친구 소소를 짝사랑해왔던 친구 맹번, 그리고 소소에 대한 그의 변함없던 사랑.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한 온정은 자신과 소소의 추억을 되찾기 위해 맹번이 기고했던 <여름 여행>이라는 잡지의 글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각각의 글 속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추억, 소소를 만나기 위해 어떤 기다림도 기쁘게 맞이했던 맹번. 이렇듯 잡지를 찾아 헤매고 맹번의 글들을 읽으며, 잊혀졌던 추억과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서서히 드러나고 90년대 말,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며 따뜻했던 기억은 온정을 다시 웃게 만든다.

<작가 소개>

지우이에후이(九夜茴)는 청춘 문학 대표 작가이자 극작가로 《私》소설 시리즈 잡지 편집을 주관했다. 대표작으로는 : 《匆匆那年》《花开半夏》《初恋爱》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출판된 작품들은 모두 영상화 되었다. 영화, 드라마, 인터넷 드라마 모두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며 중국 대형 포털 소우후搜狐와 영사문화회사 小马奔腾는 함께 “九夜茴의 해”를 만들었다.

제목 : 曾少年 (上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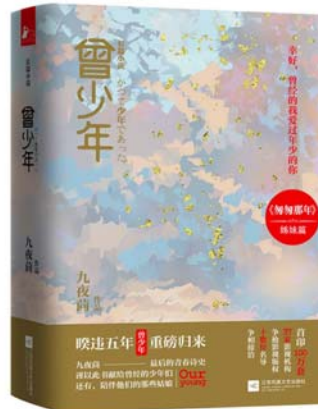
가제 : 어린시절 (상/하)

저자 : 지우이에후이(九夜茴)

분량 : 273 페이지 / 233 페이지

발행일: 2015.08.01

장르 : 로맨스 소설



출판되기 전부터 인기를 끈 작품으로 첫 인쇄 부수만 100만부를 기록하여 현재 영화화 논의 중 200만 인쇄 부수를 기록한 8년간의 베스트셀러 “바빴던 그 해” 저자의 최신작

씨에치아오, 시아오촨, 친촨은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난 아이들이었다. 씨에치아오에게 시아오촨은 항상 따뜻하고 멋진 사람으로, 그녀의 인생에 한줄기 빛 같은 존재였고 그녀는 어릴 적부터 그를 좋아해왔다. 반면 친촨과는 어릴 적부터 서로 싸우고 말썽을 피우곤 했지만 누구도 상대방을 떠나려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아오촨과 친촨은 연달아 이사를 가고, 이후 세 사람은 별뿔이 흩어지게 된다.

중학생이 된 씨에치아오와 친촨은 가까운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친촨은 그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씨에치아오를 보호해준다. 씨에치아오도 마찬가지로 친촨이 신경쓰였고 그의 여자친구인 리우원원으로 인해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그녀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 전에 리우원원을 도와주다가 시아오촨 오빠가 다니는 학교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친촨은 리우원원과 헤어진다. 상처받은 리우원원은 이 친촨을 위협하자, 친촨은 캐나다로 도피한다.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해 시아오촨 오빠가 다니는 대학에 다니게 된 씨에치아오. 그녀는 치엔시와 친구가 되지만 씨에치아오가 용기를 내 시아오촨 오빠에게 고백하려던 순간, 치엔시와 시아오촨의 연극 무대를 보고 두 사람이 사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씨에치아오는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밖에 없었고, 실연으로 슬퍼하는 그녀를 친찬이 귀국해 그녀 옆에서 보살펴준다. 친찬의 보살핌을 받으며 씨에치아오와 친찬은 함께 친찬의 누나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 상해로 간다. 결혼식 날, 친찬은 씨에치아오에게 고백하지만 씨에치아오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전 여자친구의 자살 소동으로 급히 해외로 떠나야 했고, 두 사람은 다시 헤어지게 된다.

이 때 씨에치아오를 좋아하던 친구 양청도 그녀에게 고백을 해오고, 주저하던 씨에치아오는 결국 그의 고백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늘수록 씨에치아오도 점점 양청에게 의지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생활 격차는 너무나 컸고 양청도 씨에치아오에게 완전히 몰두하는 것 같지 않았다. 씨에치아오는 괴로움에 술을 마시고 친찬은 그녀 곁을 지킨다. 씨에치아오는 혼자 있는 것이 싫어 결국 양청과 화해를 한다.

그렇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이 점점 친찬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학을 가게 된 양청과 이별한다. 씨에치아오는 친찬에게 만약 둘이 함께할 수 없다면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쓰촨으로 떠나 공부를 하던 도중, 쓰촨 지진이 일어난다.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한 친찬은 씨에치아오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 사람은 마침내 연인으로서 함께 하게 된다. 결국 씨에치아오는 30살이 되던 해 친찬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앙숙 같았던 두 남녀가 많은 굴곡을 거치며 마침내 자신들의 감정을 확인하고 행복한 결말을 이루게 되는 로맨스 소설이다.

<작가 소개>

지우이에후이(九夜茴)는 청춘 문학 대표 작가이자 극작가로 《私》소설 시리즈 잡지 편집을 주관했다. 대표작으로는 : 《匆匆那年》《花开半夏》《初恋爱》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출판된 작품들은 모두 영상화 되었다. 영화, 드라마, 인터넷 드라마 모두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며 중국 대형 포털 소우후搜狐와 영사문화회사 小马奔腾는 함께 “九夜茴의 해”를 만들었다.